

## 제 12회 세계한국학대회 기조 강연

### 지역학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학: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 (Korean studies from the perspectives of area studies: the case of Vietnam)

채수홍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아시아연구소 소장)

인류학자로서 요즘 다른 국가와 사회를 방문하다 보면 한류의 인기에 새삼 놀라게 된다. 방문국의 현지인이 내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확인한 다음, 한국 영화, 드라마, K-pop 등은 물론이고 한국의 여러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하는 걸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문화의 토대가 언어라는 점을 인식하고 한국어를 익히려는 외국인 수가 날로 늘고 있다. 외국의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말은 물론이고 어려운 어휘까지 구사하는 외국인을 만나는 것도 가능해지고 있다. 최근 한국학의 비약적인 발전도 이러한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5월 현재 전 세계 한국학 기관은 1,407개로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동북아시아가 703개로 가장 많지만 동남아(142개), 북남미(185개), 서중유럽(166개)에도 빠른 속도로 한국학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 나라"만이 아니라 그동안 '문화적 거리감(cultural distance)'이 존재했던 "먼 나라"에도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 욕구가 팽창하고 있다. 특히 1,000여 개를 넘는 한국어 학원과 센터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시도하는 한국학 학위를 주는 기관도 학사(578개), 석사(199개), 박사(122개)를 막론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인상적이다.

강연자가 25년 넘게 연구해 온 베트남도 이와 같은 한류와 한국학의 비약적 발전을 목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본인이 본격적으로 장기 '현지 조사(fieldwork)'를 시작한 1998년에만 해도 호치민을 비롯한 남부 베트남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적었고, 그것도 다른 외국어를 함께 가르치는 소수의 사설학원이거나 선교를 위한 종교시설이었다. 당시 한국계 공장에서는 통역할 베트남 직원을 구하기 힘들어서 북한에서 유학했거나 베트남 전쟁 당시 통역 경험이 있는 인물을 섭외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하노이와 호치민의 일부 대학에 한국어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지만, 한국어, 한국 사회, 한국문화를 가르칠 교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사정 때문에 베트남어를 전공한 한국인을 한국회사에서 고용했으나 이들의 의사소통 매개 능력도 한계가 있었다. 단순히 일상 언어를 안다고 해서

‘문화 번역(translation of culture)’이 가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런 시절을 회고해 보면 오늘날 유창한 한국어 구사 능력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가진 베트남 전문인력의 수준은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유학하던 베트남 학생의 일자리가 많지 않아 걱정하던 20여 년 전과 비교할 때, 오늘날 한국어를 교육하는 기관이 베트남에만 40여 개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은 경이롭다. 학사를 배출하는 대학이 30여 개, 석사(3개)와 박사(1개)를 기르는 기관도 4개가 있으며 학위를 주지는 않지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기관도 30개 가까이 있다. 매년 베트남을 방문할 때마다 목격하는 한국 교육기관의 빠른 성장은 세계 어느 국가의 사례와 비교해도 놀라운 것이다.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이번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세계 한국학대회처럼 한국학 관련 행사가 거의 매달 열리고 있다. 그 결과 여러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다양한 분야의 한국인 학자가 해외 한국학과 베트남에 관심을 가지고 양국 관계를 성찰할 계기를 제공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학 기관의 성장으로 베트남인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호혜적(reciprocal) 관계와 상호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베트남에 한국말과 한국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열풍이 일어나게 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최근 20여 년 동안 한국 정부와 교육기관의 해외 한국학에 대한 지원이 점차 확대된 것이 주요 동력이 되었음에 분명하다. 대표적인 해외 한국학 지원 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n Foundation, 이하 KF)과 한국학중앙연구원(Academy of Korean Studies, 이하 AKS)을 필두로 한국의 주요 대학에서 해외 한국학의 진흥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을 늘리고 있다. 이 가운데 KF는 2010년대(2011-2020)에만 총 39개국 130개 대학에 강좌를 개설하여 약 4만 명의 수강생을 배출한 바 있다. 이러한 강좌를 유지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여 한국학 교수직을 설치하게 하고 대학원생, 박사후과정, 외교관 등에게 장학금을 제공하여 한국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KF가 지원하는 ‘global e-school’은 2011년부터 해외 대학생에게 3,700여 개 이상의 강좌를 제공하여 한국어 학습만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의 우수 학자와 해외 학생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에 제공된 강좌도 400여 개(약 11%)가 넘는다. 강연자도 최근 몇 년간 하노이와 호치민의 인문사회대 학생을 대상으로 e-school 강좌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여러모로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수강생의 한국어 구사 능력, 한국 사회에 대한 호기심, 서로의 문화 차이를

확인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본인에게 '현장 연구(fieldwork)'를 진행하는 느낌을 선사했다. 한국인 강사가 이러한 강좌를 통해 해외에서 한국학에 관심이 있는 현지인과 만나 서로의 문화를 성찰하는 과정이 인류의 상호이해를 목표로 하는 인류학을 비롯한 지역학(area studies)의 기본 활동과 닮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KF가 대중적인 한국학, 즉 한국 사회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면 AKS의 한국학 지원은 전문학술 기관과 학자의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AKS는 인문-사회 분야에서 한국 사회의 토대를 연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과 함께 국내외의 한국학 연구 기관을 양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해외에서 한국학을 교육 제도 내에 안착시키고 싶어 하는 학자에게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 '해외 한국학 사업'이 아닐까 한다. AKS는 한국학 교육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가 취약한 해외 교육기관은 '씨앗형'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교육과 연구 역량을 갖춘 기관은 '중핵대학 육성 사업'을 통해 장기 지원을 실행하고 있어 모국 혹은 체류국에서 한국학과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해외학자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AKS의 한국학 지원사업은 이 밖에도 한국학 전략연구소 육성, 학술 번역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해외에서 한국학과를 설립하고 성장시키려는 교육-연구자에게는 '해외 한국학 지원사업'이 보다 많은 호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KF와 AKS가 해외 한국학 진흥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한국학에 관한 지식을 생산하고 보급하는 토대는 역시 한국의 교육기관, 특히 대학일 수밖에 없다. 2023년 3월 현재 한국에는 336개의 대학이 있고 이들 가운데 일반대학(190개)과 교육대학(10개)에는 한국학 관련 기초 지식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학과가 존재한다. 이들은 거의 예외 없이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학과, "(한)국사학과" 등을 두고 있고 일부는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 센터(소위 한국어 학당)를 갖추고 있다. 이 강연을 정리하면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언어교육과 "전통적 국학(traditional national studies)"을 넘어서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연구하는 여러 학문 분야가 참여하여 한국학의 지평을 넓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학이 한국어, 한국사,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현대 한국 사회를 탐구하고 교육하는 분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고자 한다면 한국 사회를 탐구하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발전과 국제적 학술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해외 한국학 교육/연구 프로그램의 제도적 지원과 활성화

는 한국학이 왜 그리고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현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강연자는 이처럼 명시적인 제도적 요인만이 아니라 한국학을 발전시키고 있는 구조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을 설명해야만 한국학 발전의 동력은 물론이고 미래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학 발전의 성과만이 아니라 문제점을 성찰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삼아 강연자는 베트남을 사례로 어떤 구조적 요인이 한국학의 놀라운 발전을 이끌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설명의 과정에서 한국학을 근대학문의 한 영역인 지역학의 한 부분으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역학의 지난 경험을 통해 한국학이 지양해야 하는 문제를 성찰하고 지향해야 할 방향을 통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한국학이 단기간에 발전하고 확산할 수 있었던 기반은 한국의 기적에 가까운 경제성장이다. 불과 30여 년 전까지도 동북아시아의 저개발국가로 인식되던 한국이 2022년에는 세계 5위의 무역수지, 13위의 국내총생산(GDP), 22위의 1인당 국내총생산의 위치를 점하며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압축성장(compressed growth)'은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세계자본주의 역사에서 주변부(periphery)에서 준-주변부(semi-periphery)를 거쳐 핵심(core) 국가의 대열에 들어선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 제조업 가치사슬에서 고급, 중급 제품을 생산하는 핵심 국가의 하나이다. 의류, 신발 등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은 물론이고 반도체, 자동차, 전자 제품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주요 생산자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경제의 이와 같은 압축성장은 높은 교육열에 힘입은 우수한 인적 자원과 함께 제조업과 무역 중심의 경제 전략이 먹혔기 때문이다.

한국학 발전은 이러한 한국경제 성장의 특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제조업 생산과 무역이 중심인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은 해외 소비시장에 달려있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국가와의 친밀한 관계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외국인의 존재가 한국경제의 젖줄인 셈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한국의 제조업 생산기지가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임금이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개발도상국으로 속속 이전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협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조건, 즉 한국경제의 비약적 성장과 해외 노동/소비시장에의 의존은 한국이 한국학을 발전시켜야 하는 동기와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은 이와 같은 점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

레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오늘날 여러 측면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친밀한 관계의 발전은 1992년 양국이 수교한 직후부터 경제적으로 서로 필요한 것을 제공했기에 가능했다. 1990년대부터 급격한 임금 상승에 직면한 한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은 양질의 값싼 노동력을 보유한 국가를 찾기 시작했고, 도이머이(Doi Moi, 개혁개방정책)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했던 베트남은 기술 수준에 걸맞은 외국자본의 유치가 절실했다. 양자의 이해관계가 경제성장 단계에 조응하여 잘 들어맞으며, 한국은 베트남의 누적투자 1위 국가로서, 베트남은 한국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귀중한 협력국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베트남이 한국에 얼마나 중요한 경제 파트너인지는 한국의 지역별 수출구조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010년대 후반까지 아세안은 한국 수출의 약 15%를 차지하는 지역이며, 베트남은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약 8%를 점하고 있다. 이는 일본(약 5%)은 물론이고 미국(약 12%)과 EU(약 9%)와 비견할 수 있는 무역 관계이다. 최근에는 약 25%가량을 점유하던 대(對)중국 수출이 점차 줄어들며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근대화 이후 줄곧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해 온 한국인이 상상하는 것보다 베트남이 한국에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베트남의 밀접한 경제 관계는 필연적으로 양 국민의 활발한 인적교류를 이끌었다. COVID-19의 여파로 이전에 비하여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현재 약 15만 명의 한국인이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1992년 수교 이후 베트남에 나타나기 시작한 한인이 불과 30여 년 만에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은 오늘날 약 8,000개 이상의 한국기업이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는 의류, 봉제, 신발 업체, 2000년대에는 금융, 유통, 부동산 업체를 중심으로 한국기업이 속속 베트남에 진출하였으며, 마침내 2000년 후반에 한국 제조업의 핵심인 삼성과 LG가 각각 북부의 박닌과 하이퐁으로 생산기지를 옮겼다. 그 결과 오늘날 베트남에 가면 한국에 있는 웬만한 주요 기업을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 이전은 관리자만이 아니라 이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다수의 소규모 자영업자까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주시켰다.

이와 같은 양국의 경제교류는 자연스럽게 인적 교류를 증가시켰다. 관광, 이주노동, 유학은 물론이고 양 국민의 국제결혼도 활발해졌다.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국제결혼(1987-2006, 약 37만 건) 중에

90% 이상이 중국(주로 조선족), 베트남, 기타 동남아시아인이었으며, 2018년을 기점으로 약 40%가 한국과 베트남인의 결혼이었다. 양 국민 결혼의 다수는 베트남 여성이 한국으로 “시집을 와서” ‘다문화 가정’을 이룬 경우이지만, 한국인이 베트남인과 결혼하여 베트남에 거주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필자가 2010년대 후반에 파악한 바로는 호치민에만 3천 쌍 이상이 소위 이러한 ‘한-베 가족’을 형성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한국학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이처럼 경제교류에 토대를 둔 인적교류의 산물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화적인 요인도 있다. 본인이 처음 베트남에서 현지 연구를 시작한 1990년대 말부터 한국 드라마와 한국 배우의 인기는 엄청났다. 당시만 해도 베트남에서 한국 대중문화가 인기를 누리는 요인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 유사성을 거론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들은 양국이 유교적 가족관이나 애정관이 유사하다는 주장을 펼치곤 했다. 하지만 한류 전문가가 아닌 강연자의 짧은 식견으로도 이런 설명은 불완전해 보였다. 베트남이 아닌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이미 한류 열풍이 불고 있었기 때문이다. 분명한 점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도 전지구화(globalization)와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으로 한국산 대중문화가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베트남에서도 이제 넷플릭스 등 OTT를 통한 한국 콘텐츠의 소비가 일상적이다. 베트남에서는 ‘오징어 게임’, ‘이태원 클래스’, ‘더 글로리’ 등의 내용과 등장인물을 강연자보다 더 잘 아는 베트남인을 이제 쉽게 만날 수 있다. 벌써 ‘옛날 세대(old generation)’가 되어버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원더걸스만이 아니라 방탄소년단(BTS), 블랙 핑크, 뉴진스를 모르는 청소년을 찾기 쉽지 않게 되었다. 드라마, 영화, K-pop만이 아니라 한국의 뷰티, 패션, 음악에 대한 베트남인의 관심도 2020년대 들어 명실상부한 세계적 현상이 되어버린 한류의 인기를 새삼 깨닫게 한다. 하여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 한류의 인기는 단순히 경제 관계와 인적교류의 결과로만 보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한국학의 발전은 양국의 긴밀한 경제 관계와 이에 따라 활성화된 인적 교류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로 인한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양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고 질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견해 볼 수 있다. 한국학의 발전은 경제 관계의 발전 그리고 인적 교류의 활성화와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베트남의 사례가 함축하고 있는 구조적 요인의 중요성이 한국학 진흥의 양가적(ambivalent)이고 모순적(contradictory)인 효과를 성찰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타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학 발전이 궁

정적,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한다. 한편으로, 한국학이 한국과 다른 국가의 친밀성(intimacy)과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매개체로 역할하고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학이 한국인에게 '문화적 소-제국(petit-empire)'에 대한 환상과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를 부추기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 실제로 한국과 베트남에서 한국인이 한류와 한국학의 확산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문화적 자부심과 문화의 교류에 대한 만족감을 넘어서서 문화적 우월성을 과시하거나 다른 문화를 향유 하는 집단을 타자화(Othering)하는 경우를 종종 만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성찰하기 위해 지역학을 실행하는 인류학자로서 타문화와의 교류 과정에서 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몇 가지 관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다른 지역과 집단의 문화를 연구하는 인류학자와 지역학자가 일종의 규범처럼 내면화하는(internalize) 관점은 문화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일 것이다. 다른 문화를 내 문화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자민족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현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라고 학습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상대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딜레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령 외국인이 한국 사회와 한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학을 접할 때 문화상대주의 관점을 취하여 한국인의 문화를 모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자신의 문화적 관점에서 한국문화에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믿으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타당할까? 마찬가지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한국학을 가르치고 한국문화를 설명할 때 어느 정도 한국인의 관점을 이해시키고 동시에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데는 딜레마가 있다. 다른 문화가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폭력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될 때 이에 대하여 어떤 해석을 내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모호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할레, 전족, 카렌(Karen)족의 목걸이 착용 등 일부 문화에서 행했던 남녀 차별적 미적 관행을 접할 때 이를 문화상대주의의 입장에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지 난감할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혹자는 문화상대주의와 '윤리 상대주의(ethical relativism)'를 구분하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상대의 문화를 인정하되, 인간에게 피해를 주고 인간을 억압하여 보편적 윤리에 어긋나는 것은 지적하고 시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견 현명한 해결책처럼 보이는 윤리 상대주의의 관점에는 어떤 생각과 행위가 윤리적이라는 기준을 누가 혹은 어떤 문화의 관점에서 판단할 것인지라는 난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가령, 자신의 미를 위해

건강을 해칠 위험을 감수하면서 목걸이를 가능한 한 많이 걸고 싶어 하는 카렌족 여성이 “왜 너희는 잔인하게 신체를 훼손하는 성형수술을 허용하면서 우리의 행위만 미개한 것으로 비판하냐?”고 항변한다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문화상대주의와 윤리 상대주의의 이러한 딜레마는 우리가 실행하고 누리는 문화가 모두 타당하고 합리적이진 않다는 점에서 우리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든다. 잘 알려진 인도의 소 숭배, 아즈텍(Aztecs) 문명의 식인풍습, 포레(Fore)족의 쿠루병 등은 이러한 딜레마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사례이다. 인도의 소 숭배는 인도인의 관점에서 존중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불합리한 풍습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을까? 이러한 질문은 한국에 대하여 배우는 외국인도, 한국을 외국인에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한국인도 항상 직면하는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강연자가 인류학자와 지역학자의 이러한 난제를 굳이 거론한 이유는 한국 문화의 확산과 한국학의 발전이 특정 문화를 일방적으로 확산하는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다는 성찰 때문이다. 실제로 모든 사회가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는 ‘샐러드 접시(salad bowl)’ 형태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문화를 함께 넣어 끓이는 ‘냄비(melting pot)’ 모양을 선호하는 힘(power)이 작동한다. 우리는 타문화를 배울 때 이와 같은 동화주의(cultural assimilation)와 다원주의(multi-culturalism) 사이에서 방황하기 십상이다.

끝으로 한국학이 안고 있는 인식론적 문제도 함께 생각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다. 오늘날 외국인이 한국의 사회, 문화 그리고 역사를 배우고 탐구하고자 할 때 (혹은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이를 가르치려 할 때도) 한국을 고립된 혹은 외부와 단절된 경계 속에서 이해할 위험이 있다. 사실 한국 사회와 문화는 항상 열려 있었고 변화해 왔다. 바깥 세계와의 접촉을 통해 유동적인 경계, 정체성, 형태, 내용을 형성해 왔다. 지금 한국적인 것이라 믿는 문화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닐 수 있으며(예를 들어, 김치), 완전히 한국적인 한국문화만의 고유한 특성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통신과 교통의 비약적 발전으로 변방의 문화까지 전지구화(globalization)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오늘날 한국문화 역시 초국적(transnational) 특성을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학은 어떻게 한국의 사회, 문화, 역사를 이해시킬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한국학은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 혹은 다방향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도 한국을 익히고 좋아하는 만큼 자문화와 한국문화의 상호이해와 접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을 유형화하여 고정관념을 생산하는 것을 지

양하고 한국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타문화와의 접변(acculturation) 과정 내에서 이해하는 한국학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상대주의의 딜레마, 문화의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양면성, 다원주의와 동화주의, 전지구화와 초국가주의의 영향에 대한 성찰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지역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숙고할 때 문화간 호혜성에 기반을 두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관점의 한국학이 발전할 수 있다. 그 결과 베트남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한국학이 미래에도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